

靑 ‘조국 딸’ 여론 주시 先청문회 고수

“청문회서 직접 해명하면 해소될 것” 판단하는 듯

조국 “‘딸 부정입학’은 가짜뉴스…청문회서 밝힐 것”

청와대는 2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딸의 ‘금수저 전형’ 등으로 확산되자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설명을 들어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채 다른 선택은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보고는 있다”면서도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은 고교2학년 재학 중 2주간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으로 있으면서 참여하는 등 제1차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스펙’을 바탕으로 고려대 수시전형으로 입학했다.

이에 대학가 등 ‘2030 세대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부모 능력에 기댄 금수저 전형’으로 성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자진 사퇴’, ‘지명 철회’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에선 여전히 국회에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오는 30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늦어도 9월 2일까지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9일 통화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공격은 예상됐던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들 상당 부분은 청문회 당일 이야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

다. 부각된 주요 의혹들이 조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딸이나 동생, 동생의 전처 등 가족과 관련한 사안이라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해서조차 아직까지 명확하게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것은 없는 만큼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해명을 통해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청와대는 한국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늦어도 9월 둘째주 추석 연휴 전까지는 ‘8·9 개각’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마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입학 전형’이라는 민감한 교육 문제로 옮겨붙고 있는 점은 청와대로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크콘서트에 참석

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들의 대학입학이나 취업과 관련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국민 정서”라며 사안의 중요한 의미를 의식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은 잘 알지만 바로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학 입시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지금은 불법이지만 논란되는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엄포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특히 딸 장학금과 논문 저자 등재 비리에 관해선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적 질책을 받고 또 뉘엿뉘엿했다.”

그러면서도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모든 사안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확히 밝히겠다”며 특히 “딸이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손학규(왼쪽)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바른미래 투톱, 라디오서 ‘설전’ “손학규, 감동없어”vs“사퇴 없다”

바른미래당 지도부 투톱인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21일 각각 라디오에 출연해 설전을 벌였다.

퇴진파인 오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 체제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감동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손 대표는 “대표 사퇴 요구는 잘못됐다”고 선을 그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20일) 있었던 ‘손학규 선언’

이어 “당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손 대표가 없었다. 오히려 당을 만든 구성원들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퇴진파 인사들의 탈당 가능성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손 대표는 같은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의 퇴진 문제를 일축했다.

그는 “4·3 보궐선거에서 창원 선거에서 졌다고 사퇴를 하라고 하

오신환 “孫으로 총선 불가 대다수 목소리…퇴진파 탈당 없어”
손학규 “한국당에 당 못넘겨…분열 없었으면 10% 됐을 것”

과 관련, “손 대표는 이미 상처 난 대선이다. 혼자만의 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손 대표가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를 끌어안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아무런 감동이 없다. 나는 당 대표를 유지하면서 내가 총선을 치를 테니 화합하자”라는 말은 (누구나)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힘을 모아보자고 해야 진성성이 있는 것이다. ‘추석 전에 10% 지지율 확보 못하면 사퇴하겠다’는 말은 어디로 날아가버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손 대표 얼굴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구성원들의 목소리다. 당권파·비당권파, 호남 중진 의원들도 이런 말을 하고있다”며 “손 대표를 뺀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모두 거부하고 있다. 리더십이 붕괴된 것이다.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신 손 대표께서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유성엽 “평화당 의원들,

합류하려면 생각 바꿔야”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가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대안정치연대와 함께 제3차 창당에 합류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대표는 21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안정치연대가 발족하게 된 근본적인 뜻은 가짜보수와 가짜진보를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창당에 합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유 대표는 “지금의 평화당으로는 힘들어서 그대로는 못갈 것이다”면서 “창당에 합류하려면 정치세력의 전면교체라는 대안정치연대의 취지나 생각에 대해 먼저 동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유 대표가 말하는 ‘정치세력 교체’는 안철수 전 의원을 중심으로 창당했던 국민의당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教師) 삼겠다는 의미다.

‘유성엽 대표 뒤에는 박지원 의원이 있다’는 평화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쳤다.

유 대표는 “평화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혼자라도 탈당을 할 계획이었다”면서 “박지원 의원이 처음에는 말렸으나 이후 나와 생각을 같이해 탈당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1

정경두 국방장관, 한국당 의원과 정면충돌…“軍평혜 마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21일 군의 안보 대비 태세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과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종료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훈련을 축소하고 전에 하던 훈련 이상으로 잘 한다고 하면 누가 믿는가”라며 “병력을 동원하지 않는 훈련을 그런 궤변으

로 제대로 된 훈련이라고 강변하는가”라고 따졌다.

정 장관이 이 의원에게 “(훈련을) 참관해 보셨는가”라고 따지자 이 의원은 “나도 국방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디 그따위 소리를 의원한테 하는가. 참관은 안 하면 모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 장관은 “우리 군을 폄하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이 의원이 사단급 훈련을 대대급으로 낮췄다고 지적하면서 “나도 국방 전문가가 아니지만”이라고 말하자,

정 장관은 바로 “국방위원인데 왜 전문가가 아니라 하십니까”고 따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정 장관은 이종명 한국당 의원과도 충돌했다.

이 의원이 “북한 눈치를 보느라 훈련을 축소하고 훈련 연습을 위해 책정된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3군 사관생 합동훈련에 임의로 집행했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왜 우리 국민이 오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풀아가는가. 질의하는 의원님들이 자꾸 이상하게 풀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국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지자 정 장관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 순서에서 “무기체계가 과거와 달라졌고, 작전 운영 시스템도 발전했는데 과거와 같은 훈련을 해야 하는가”라고 재차 설명했다.

정중섭 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정 장관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저도 하나 부탁드린다. 군을 너무 폄하하거나 타당성 없는 말씀을 한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하시면 군의 사기가 저하한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